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6호 [루계 제25625호] 주제 106 (2017)년 4월 26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군, 혁명적당군의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전진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갈것이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85돐 경축

#### 조선인민군 군종합동타격시위를 보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 밑에 주체의 건군 위업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 사회주의 조선의 필승의 위력이 힘있게 파시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85돐을 경축하는 조선인민군 군종합동타격시위가 건군 사상 최대규모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85돐경축 조선인민군 군종합동타격시위를 보시였다.

천재적인 군사 전략사상과 무비의 담력, 탁월한 령도로 백두산혁명강군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강철의 명장 김정은동지를 모실 시각을 기다리는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은 한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새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오전 10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독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더쳐올리는 인민군장병들은 회세의 천출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가장 빛나는 위훈의 력사를 창조하여온 조선인민군의 전투적 행로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명명만 내리신다면 일격에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격멸소탕하고 단숨에 남조선을 깔고앉아 평정해버릴 전투적열망으로 심장을 펄펄 끓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관람석에 자리를 잡은 총정치국, 인민무력성, 총참모부 지휘성원들, 군종사령관들과 정치위원들, 군단장들과 정치위원들, 조선인민군 사단장, 려단장들, 각급 군사학교 교원

전선동비행정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 인민무력상 육군대장 박영식동지가 맞이 하였다.

김원홍동지, 리영길동지, 조남진동지, 량철성동지, 조경철동지를 비롯한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이 정렬해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육군상장 박정천동지가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창건 85돐경축 군종합동타격시위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렬한 조선인민군 해군,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인들과 조선인민군 전선 최정예포병부대를 사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리

들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령에 따라 전선집단의 최정예포병부대들이 화력진지에로 기동을 시작하였다.

2 번 으 로 계 속

